

2019년 봄 학기  
전시간 훈련을 위한  
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 
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 
놀라우신 그리스도

메시지 9

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됨

성경: 롬 7:2-6, 6:6 상, 고후 11:2

I. 그리스도는 새 남편이시다 — 롬 7:2-6, 6:6 상.

- A. 거듭난 사람들인 믿는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남편이시며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분이다.
- B.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가지고 있다.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남편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가련한 것이다 — 롬 7:4.

II. 우리의 옛 사람, 곧 옛 남편은 십자가에 못박혔다 — 롬 6:6 상, 7:2-3.

- A.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 상반절은 두 남편을 보여준다.
  - 1. 첫 번째 남편, 곧 옛 남편은 6장 6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옛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— 롬 7:2-3.
  - 2. 두 번째 남편, 곧 4절에서 언급된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시다.
- B.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므로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, 곧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되었다.
- C.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.
  - 1.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한 우리들, 곧 옛 상태 안에 있는 타락한 옛 사람인 우리들이다 — 롬 6:6 상.
  - 2. 두 번째는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 우리들, 즉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듭난 새사람인 우리들이다 — 사 54:5, 고전 11:3.
  - 3.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옛 남편에게 속했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.
  - 4.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. 합당한 아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. 즉, 더 이상 우리의 옛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— 롬 7:2-4.
- D. 율법은 옛 사람인 옛 남편을 위하여 준비되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죽음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다 — 롬 7:4 상.

III.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우리가 다른 분,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— 롬 7:4 하.

- A.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.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— 고후 11:2.
- B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머리로 취해야 한다 — 엡 5:23.

1.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.
  2.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.
  3.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.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— 요 14:19, 갈 2:20.
  4.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. 옛 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— 롬 6:6 상, 7:2-4.
- C.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격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— 골 3:4.  
 D. 어떤 사람이 믿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. 즉 그 사람은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다 — 마 28:19.

**IV. 아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매로 맺는다 — 롬 6:22, 7:4.**

- A.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, 우리는 하나님을 열매로 맺는다.
- B. 거듭난 사람이자, 아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매로 맺는다.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C.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의 생생한 대조를 본다.
- D. '하나님을 열매로 맺는다'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, 즉 하나님께서 열매로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  1.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.
  2.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산출해야 한다. 즉 하나님의 넘쳐흐름을 가져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열매로 가지며 하나님을 열매로 맺는다.

**V.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. 아내이자 새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— 롬 7:6.**

**VI. 아내로서 우리는 또한 문자의 낚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— 롬 7:6.**

- A. 6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이 있고 7장 6절에서는 우리의 봉사를 위한 영의 새로움이 있다.
  1.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된 결과이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행함을 위한 것이다 — 롬 8:4.
  2.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결과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를 위한 것이다 — 갈 2:19.
  3. 영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힌 결과이다 — 롬 6:6 상.
- B.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그 영과 관련된 것이다 — 롬 6:4, 7:6.
  1.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다 — 고전 15:45 하.
  2. '영의 새로움'이라는 표현에서의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람의 영 안에 그 영이신 주님이 거하신다 — 딤후 4:22 상.
    - a.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수 있다.
    - b.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다 — 롬 7:6.
    - c.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— 딤후 4:22 상, 고전 6:17, 갈 6:18.
    - d.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롭다.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새로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— 고후 5:17, 계 21:5 상.
- C. 우리는 새 사람인 우리가 옛 사람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고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— 롬 7:4, 6.